

전주문화재단, '예술로 링크' 선정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국비 8000만원 확보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예술로 링크(Link)'에 선정, 국비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술로 링크(Link)'는 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적 지원을 연계하여 학교 수요 맞춤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학교 안에

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매개자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며,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28곳이 참여, 2차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으로 전주문화재단을 포함한 5개 기관이 선정됐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이 중점사항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단에 따르면 꿈꾸는 예술터 전국 1호로 지정된 팔복예술공장에서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구축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총 1억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심사 총평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연계 등 사업역량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기존 프로그램 지원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열어둔 기관을 우선적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역량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를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 향후 예술가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문화재단은 향후 지역 안에서 학교와 지역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교-예술가-재단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학교별 환경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술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문화재단 청소년 예술놀이 프로그램 중등(미디어)

/장은성기자

무주 최북미술관 '어울림' 기획전

9월 12일까지 기획전시실서 6명 조각 작가 작품 전시

무주군이 수준높은 입체 조각(조소) 작품을 전시, 군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어울림' 기획전을 마련했다.

조각은 재료를 새기거나 깎아서 입체 형상을 만든 작품으로 주로 나무, 돌, 금속 따위로 만든다. 이번 '어울림' 기획전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권성수, 박승만, 박재연, 소신영, 임민택, 최승일 6명의 조각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된 조각 작품들은 돌과 철, 나무 재료로 숲의 이미지와 자연과 동물을 주제로 한 작품, 오래된 돌을 이용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순환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권성수 작가는 전주대학교 미술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했으며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개인전 9회와 단체전 100여 회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자연석을 활용한 관계와 묵상·순환 작품을 선보인다.

박승만 작가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개인전 9회와 단체전 60회 참여했으며, 철을 이용한 작품들을 선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박재연 작가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개인전 8회와 단체전 100여 회 참여했으며, 시멘트를 활용한 작품이 이채롭다.

소신영 작가는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미술학과 조소를 전공했다. 오래된 나무를 활용해 '고양이 소녀', '토끼소년'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임민택 작가는 중국 북경 미술학원 학사 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밟았다. 개인전 1회와 국내외 단체전에서 100여회 작품을 전시했다. 돌로 산과 불을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최승일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 조형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역시 대리석으로 바람과 물결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행사 업무 양정은 학예사는 "기존의 회화 중심에서 벗어나 흔히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조각(조소) 등을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점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자연과 동물 등의 주제를 통해 생명의 존중·자연의 순환 등 나아가 인간들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기자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신·구약의 예언과 성취

본문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 강사 신천지에수교회 총회장

"세미나를 보고 난 후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명확해졌다"

2022년 7월 23일(토) 오전 10시

신천지 공식 유튜브 전 세계 동시 송출

YouTube 신천지에수교회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7월 다담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침선장 기능 보유자인 구해자 명인이 출연,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과 침선 이야기를 시작으로 1988년 시어머니인 故정정완 명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침선을 배우게 된 계기, 광해군의 중치막(겉옷 안에 입는 솜옷) 복원과 영화 의상 제작에 얽힌 후일담을 들려본다.

구해자 명인은 1996년부터 한국문화재단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침선반 강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음악 즐기는 국악인 김용우가 출연해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현대적 선율과 민요가 어우러진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국악인 김용우는 2002년 10회에 걸친 일본 전국 투어 콘서트, KBS '불후의 명곡' 등



구해자 명인

김용우 국악인

다양한 무대로 대중과 소통해왔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주=김기두기자

도내 예술인 복지 증진 메세나 사업 활성화 '맞손'

전북문화관광재단-아쿠아플라넷 여수, 협약 체결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재단 대회의실에서 아쿠아플라넷 여수(이하 아쿠아플라넷)와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 및 메세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단 류상록 문화예술진흥본부장과 아쿠아플라넷 김철수 관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전라북도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양 기관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 예술인 복지 증진 및 메세나 사업 공동 추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프로모션 이벤트 지원 및 상호 홍보 △BSG 경영·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추진 △전북 예술인 대상 아쿠아플라넷 여수 이용권 할인(20%) △아쿠아플라넷 임직원 대상 전북 '관광' 브랜드공연 할인 제공(40%) △양 기관의 복지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류상록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과 전북이 함께 손 잡고 도민 및 예술인을 위해 지역별 축제 등에 상호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김철수 관장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손 잡고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 및 메세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양 기관의 협업사업 기회 및 운영으로 전북 예술인에게 최상의 창작활동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전남 여수시 신항 제2부두 인근에 지리한 국내 2위 규모의 아쿠아리움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상(4층 규모)에 들어섰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